

금감원장, 임원회의(4.1.) 당부사항 (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)

-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(4.2. 현지시각) 등 다수의 이벤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을 당부하고,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하였음

(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관련)

-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협상·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美 관세정책 및 대응동향 등을 밀착 모니터링
 - 美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심리 위축,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 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
- 한편,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며 글로벌 자금이 유럽·중국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되는 만큼,
 -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진전과 주주보호 등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

(공매도 전면재개 관련)

- 美 증시하락 및 트럼프 관세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,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우려가 없도록 적극 설명하고
 -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장조치를 강화하는 한편, NSDS*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

* 공매도 재개 첫날(3.31.) 거래소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(NSDS)은 안정적으로 운영

(최근 가계부채 상황 관련)

□ 3월중 가계대출은 신학기 이사수요 해소 등으로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1분기 가계대출 관리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

- 다만, 최근 서울·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*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으므로, 지역별 대출 신청·승인·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·점검

* '25.2월 거래량 증가율(% 전월比) : 서울 전체 79.0, 강남·서초·송파 108.7, 마포·용산·성동 108.0

담당부서 : 기획조정국장	이창규 (☎ 02-3145-5900)	팀장	이희성 (☎ 02-3145-5940)
금융시장안정국장	이 진 (☎ 02-3145-8170)	팀장	이원흠 (☎ 02-3145-8180)
자본시장감독국장	임권순 (☎ 02-3145-7580)	팀장	김용진 (☎ 02-3145-7590)
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	서현재 (☎ 02-3145-5630)	팀장	김구연 (☎ 02-3145-5636)
은행감독국장	김형원 (☎ 02-3145-8020)	팀장	이윤선 (☎ 02-3145-8040)